

민주 “尹, 특별감찰관 임명해 친인척 비리 척결해야”

사무총장 간담회…“장모 비리 의혹 모르쇠 일관” 이재명 10월 퇴진설’에 “지라시 수준 소설”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전담 조사할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역대로 친인척 비리가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해명 혹은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척 쇄신과 아울러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은 권력이 모인 곳이라 항상 엄정히 관리하고 경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법정 구속된) 장모의 비리 의혹에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로 지금까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한 차례도 임명되지 않아 7년째 공석이다.

이와 관련,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제안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진척된 내용이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인 29%를 기록(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 조사,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데 대해서는 “정국 이슈에 따라 약간의 진폭이 있으나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앞선 상태에서) 비교적 어느 정도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설’이 거론되는데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라시 수준의 소설이다. 상상은 자유지만 남의 당을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내 가상자산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이력이 있는) 김상희 김홍철 전총기 등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들의 성실업무 위반이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철승 수석대변인, 조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이재명 “총선 승리 단합 중요”…이낙연 “혁신 필요”

2시간 회동…계파 갈등 전환점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8일 마침내 회동, 내년 총선 승리를 이루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가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총선 승리는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한 반면, 이 전 대표는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단합’에, 이 전 대표는 ‘혁신’에 각각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내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이라 할 두 사람이 만나 내년 총선 승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방점을 두는 분위기가

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 모두 내년 총선 패배는 ‘공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했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분간 두 진영이 갈등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총선 승리의 대의에 공감한 만큼, 정면충돌보다는 내년 총선까지 계파 분열을 촉발할 갈등 요소를 관리하면서 정치적 활로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만만치 않다. 당장, 이 대표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압박도 부담스럽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 틀은 당내 가장 큰 뇌란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읍주윤전 전력과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배제하고, 학교폭

력 전력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공천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당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출범과 함께 공천 틀 혁신을 예고하면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비명계인 조원천 의원은 지난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만약에 (공천틀을) 건드리면 발집을 쏠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혁신위의 공천 틀 혁신 구상이 발표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내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고 돈 봉투 관련 의원들의 소환 문제 등도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8월9주(8월말-9월초) 정도에나 공천 혁신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폭염’보다 뜨거운 여야 대치

‘고속도로 국조·오염수 방류·이동관 인선’ 대립 팽팽

국회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잠시 휴지기에 들어갔지만, 여야 대치는 한여름 날씨가만큼이나 뜨겁게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이어지는 데다 이동관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선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는 지난 28일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16일 개회한다.

보름이 넘는 여름 휴지지만, 국정조사와 이 후보자 문제를 둘러싼 여야 여론전은 국회가 열리는 시기 못지 않게 가열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정정 수단’, ‘뭇된 방탄 레퍼토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닌 데 국조를 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쟁용”이라며 “우리 당은 관련 상임위원회를 무제한으로 열 수 있다. 따지고 물을 게 있다면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 의혹이 커지

면 여론도 이를 ‘덜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다. 여당이 ‘불가론’을 고수하면 국회의장이 역할이 중요하므로 김 의장 설득도 병행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대립각도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지는 국민의힘과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이미 대치 중인데, 이 후보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충돌 양상이 더 격화할 걸로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여전히 정국 뇌관이다.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맞서 기존의 당 대책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에 각 시도당 위원회까지 포함해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라는 전담적인 기구를 만들어 강력 대응을 버리고 있다. 이 기구를 통해 여론전뿐 아니라 일본을 유엔(UN) 인권위에 제소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오염수 대립도 다시 점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우리보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등 기존 기구를 비롯해 과학적 근거를 들어 오염수 안전성을 설명하는 데 당력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여야 당 대표 나란히 ‘여름휴가’

정국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던 여야 당 대표가 나란히 ‘여름휴가’에 나선다. 이들은 휴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내년 총선 밀그림을 그리는 등 향후 정국 구상에도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가족들과 베트남을 방문해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취임 후 4개월 동안 이어진 당 내외 현안을 재점검하고, 본격적인 총선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휴가 기간 외교와 복지, 세대론을 각각 키워드로 하는 ‘위대한 협상’, ‘기본소득 비판’, ‘세습 자본주의 세대’ 등 3권의 책을 읽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의 휴가를 가질 예정이다. 국내에 머물 계획이며, 주로 자택에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격주마다 재판을 받으려 출석했던 법원도 내달 4일까지 하게 휴정기와 재판이 없다. 이 대표는 휴가 중 도을 김용욱 선생이 쓴 ‘난세일기’와 문제

인전 대통령이 추천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집필한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등 2권의 책을 읽을 예정이다. 이 대표 휴가 기간 8월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중점 변경 의혹 등 쟁점 사안과 관련해 향후 어떻게 대응 공세를 이어갈지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쌍방을 그를 대복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8월 중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대 돈 봉투 사건과 관련된 당내 의원들의 소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 Card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